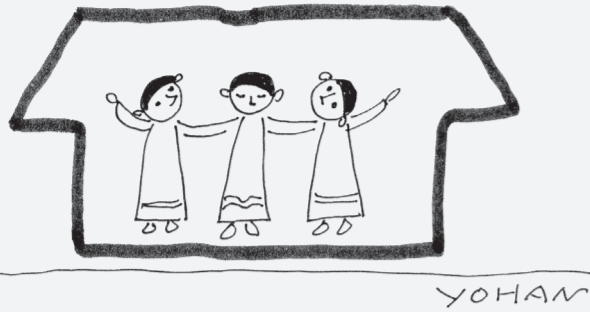


복상시와 그림



이웃을 아십니까?

이웃이 가난한 것은
그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웃이 외로운 것은
그 사람이 외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이웃이 불행하고 슬픈 것은
그 사람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아, 세상이란
우리 모두가 서로 나누고 도우며
함께 사는 공동체
사랑이란 큰 집입니다

시와 그림=김용해(요한)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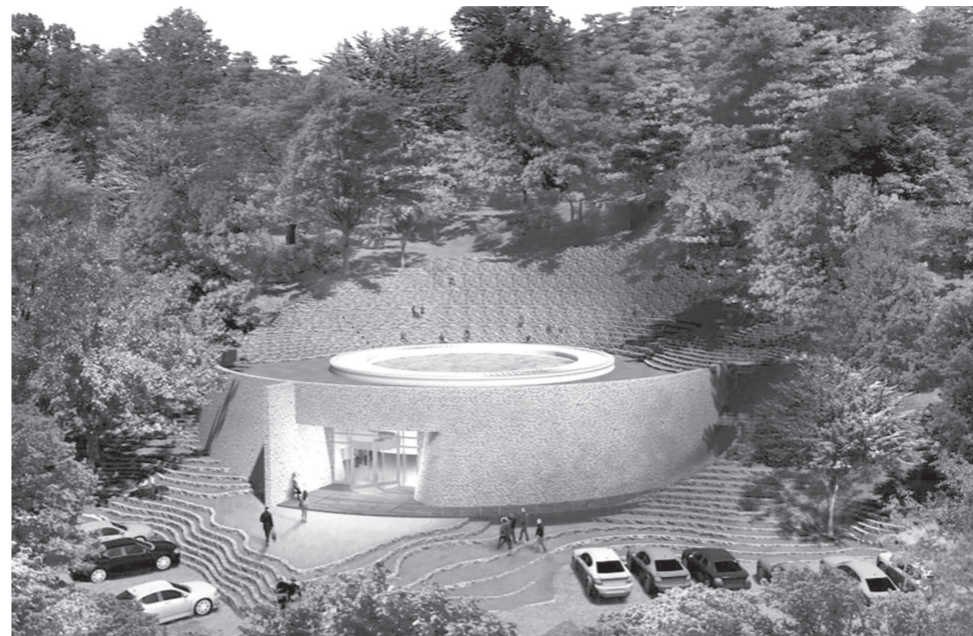
인천에 첫 영세자 이승훈 역사공원 생긴다

인천교구-인천광역시 업무 협약, 역사문화체험관과 함께 2022년 6월 준공 예정

인천광역시에 우리나라 첫 영세자 이승훈(베드로, 1756~1801)을 기리는 역사공원과 한국천주교 역사문화체험관이 생긴다. 2022년 6월 준공이 목표다.

인천교구장 정신철 주교와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9일 인천시청 접견실에서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승훈 묘역 일대(남동구 장수동 산135번지) 4만 5792㎡ 부지에 '역사공원과 천주교 역사문화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천교구와 인천시는 2018년 4월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조성계획 결정 고시·예산 확보 등 사업시행을 위한 관련 절차를 밟아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교구와 인천시 간 △역할분담 △재정부담 △기부채납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협약 내용 외에도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은 별도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인천교구는 48억 원을 들여 역사문화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느님의 종 이승훈 묘역에 2022년 6월 준공 예정인 한국 천주교 역사문화체험관 조감도.

체험관(지하 2층, 지상 1층, 총넓이 1천630㎡) 건립을 맡고, 인천시는 96억 원 예산을 투입해 역사공원을 조성하게 된다. 이달

중 토지보상 등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 체험관 건립에 착공할 계획이다. 공원과 체험관이 조성되면 전국 신자들이 1년 내내

찾아오는 순례성지로 탐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신철 주교는 협약식에서 "2013년에 시작한 이승훈 역사공원 복원사업이 첫 삽을 뜨는 만큼 인천시와 협조해서 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남춘 시장은 "이승훈 역사공원과 역사문화체험관이 건립되면 시민들을 위한 휴식과 역사문화체험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훈은 1784년 중국 베이징에서 선교사들에게 세례를 받은 후 귀국해 동료들과 신앙공동체를 형성했다. 그 후에 한국 교회는 외국 선교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시작된 세계에서 유일한 교회가 됐다. 이승훈은 오랫동안 교회 주역으로 활동하다 1801년 신유박해 때 복자 정약종(아우구스티노) 등 여러 교우와 서소문 밖 네거리에서 순교했다. 선산인 인천 남동구 반주골에 묻혔다. 인천시는 그 업적을 기리고자 이승훈 묘역을 2011년 인천시 기념물 제63호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교구는 2014년 1월 성지개발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2015년 이승훈 묘역 성지 개발 담당 사제를 임명, 인천시와 이승훈 묘역 성역화 및 천주교 역사문화체험관 건립을 준비해 왔다.

이학주 기자 goldenmouth@cpbc.co.kr

군 복음화 위한 기도·후원 간절히 호소

군종교구장 유수일 주교, 군인 주일 신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 발표



군종교구장 유수일 주교(사진)는 제53회 군인 주일(10월 4일)을 맞아 코로나19에 따른 교구 운용의 어려움을 알리고, 군 복음화를 위한 기도와 후원을 요청하는 호소문 '2020년 군인 주일을 맞아 본당 신부님들과 신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유 주교는 "올해 군인 주일을 맞아 담화문 대신 전국의 모든 본당 신부님들과 신자 여러분께 직접 드리는 호소 형태의 신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드리게 됐다"며 "이런 결정은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석 명절과 올해 군인 주일이 겹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 주교는 "군종교구는 일반 교구와 달리 군 당국의 매우 엄격한 방역 지침을 따라야 하기에, 일반 교구보다 더 오랜 기간 주일 미사 중지 및 다른 교회 활동 중지를 겪게 되었다"며 "올해 2월 중순부터 5

월 중순까지 미사를 포함한 교회 활동이 중단되었고, 이 때문에 군 신자들이 영적으로 돌보는 일이 중단되었다"고 밝혔다. 또 "2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예비신자 교리가 모두 중단되어 군 세례자 수가 급감할 뿐 아니라 군인 및 군 가족의 견진성사 집전도 올해 말까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유 주교는 이런 이유로 "영적인 면에서 그리고 재정적인 면에서 참 어려운 한 해가 되고 있어 마음이 아플 뿐"이라고 밝혔다.

유 주교는 "이런 어려움 속에 제53회 군인 주일을 맞아 전국의 본당 신부님들과 신자 여러분께서 군 복음화를 위해 계속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시기를 겸손히 그리고 간절히 요청드린다"며 "군종교구 1년 예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군인 주일 2차 헌금을 변함없이 너그럽이 해 주시고, 군중후원회의 후원회원 모집에 보다 많은 신자분들께서 응답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상도 기자 raely1@cpbc.co.kr

춘천교구 가정·생명·환경위원회 신설... 초대 위원장 김선류 신부

춘천교구가 가정·생명·환경위원회를 신설했다.

교구는 8일 공문을 내고, 코로나19 이후 생태와 기후 및 환경 사목의 절실함을 호소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뜻에 맞춘 사목을 펼치기 위해 기존 환경 사목 및 정의 평화위원회를 가정·생명·환경위원회와 정의평화위원회로 구분한다고 밝혔다. 오늘날 심각한 대두되는 생태환경 보호의 중요성과 생명윤리 인식 고취를 위해 교구 차 위원회 직제와 명칭을 재편한 것으로,

교구 사목의 초점도 이에 맞춰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된 가정·생명·환경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선류(가산본당 주임) 신부가, 총무에는 이준(청평본당 주임) 신부가 임명됐다. 이종찬(노암동본당 주임)·이일환(청소년국장) 신부도 위원 사제로 임명됐다. 아울러 춘천교구는 순교자현양위원회와 성지개발위원회를 하나로 합쳐 사목의 효율성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sjunder@cpbc.co.kr

국가 등록 문화재 광주대교구청 문화재청, 종합 정비 5개년 계획 수립

국가 등록 문화재인 광주대교구청에 대한 종합 정비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광주대교구청에 대한 종합 정비 계획은 문화재청과 광주광역시 서구청이 주관하고 있으며 최근 용역 착수 보고회를 마쳤다. 내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교구청 시설물 조사, 건축물의 특징, 보존상태 등을 조사하며, 보존 우선 순위 등을 선정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삼촌동에 자리한 광주대교구청은 브레리관, 본관, 헨리관, 식당동이 지하층을 통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전체적인 건물의 조화와 조경 환경이 뛰어난 근대 건축물로 평가되고 있다. 브레리관(제681-1호), 본관(제681-2호), 헨리관(제681-3호), 식당동(제681-4호)은 2017년과 2018년 사이 각각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됐다. 1961년 대전신학대학(현 광주가톨릭대학교)으로 지어졌던 이 건축물은 현재 광주대교구청 평생교육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상도 기자

가톨릭대학교 강엘리사벳 연구기금 지원사업 신청안내

'가톨릭대학교 강엘리사벳 연구기금'은 기증자 강성남(엘리사벳) 여사의 후원에 의해 조성되어, 가톨릭대학교의 건학 이념인 '인간 존중'의 사상을 널리 보급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기금에서는 이 목적을 위해, 1. 가톨릭 학자들의 신학과 철학을 비롯한 인문학 연구 지원, 2. 가톨릭 신앙과 교회 발전을 위한 번역 지원, 3. 가톨릭 신학과 철학 관련 학회들의 학회활동 지원을 시행합니다.

지원

- 1 분야 : 가톨릭 신학과 철학 및 관련 인문학 분야로서, 연구 과제는 자유 선택.
- 2 연구 형태 : 논문, 학술저서, 번역서, 학술대회
- 3 연구비 : 1) 연구논문 건당 500만원 한도(총 2000만원 한도)
2) 학술저서/번역서 건당 1000만원 한도(총 2500만원 한도)
3) 국내학술대회 건당 200만원, 국제학술대회 건당 300만원(총 1500만원 한도, 동일학회 연간 최대 한 건)
- 4 연구기간 : 1년

신청

- 1 신청자 : 개별연구는 개인, 공동연구(학회 포함)는 책임자(단, 기 선정자는 연구결과 제출 후 3년 경과부터 신청 가능)
- 2 신청서류 :
1) 연구비 신청서 또는 학술대회 지원 신청서 1부
2) 연구계획서 1부
(A4 3매 이상, 목적 및 필요성,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연구배경,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참고문헌 등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작성, 번역의 경우 위와 동일하나 주요내용 번역문 A4 3매 이상 첨부 필)
- 3 연구자의 연구업적목록(공동연구자 포함) 1부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 4 신청기간 : 2020년 9월 17일 ~ 2020년 10월 31일
- 5 제출처 : 1466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가톨릭대학교 철학과 내
"가톨릭대학교 강엘리사벳 연구기금" 담당자 Tel) 02-2164-4560

* 신청서류는 양식(가톨릭대학교 인터넷홈페이지 공지사항 '가톨릭대학교 강엘리사벳 연구기금' 지원사업 안내에서 양식 다운로드)에 따라 작성,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눈빛과 손말로 전하는 마음의 소리

www.sungsim4u.or.kr

청각 · 언어장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을 채워주세요!

코로나19 속에서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며 나눔 속에 풍요를 채워주시는 평화신문 구독자분들을 생각하며 오늘도 기쁨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늘 그렇듯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청각 · 언어장애 아이들은 재활원 앞 자갈과 아스팔트로 된 주차장에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작은 공간 사이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눈빛과 손말로, 때로는 어눌한 언어를 주고받으며 뛰어노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넘어지지는 않을까, 마스크 때문에 답답하지는 않을까,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의 걱정스러운 눈빛에도 불구하고 '덤다'라는 손말 언어로 여름의 계절을 담아내는 아이들을 보며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후원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으로 장애아이들과 비장애아이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이 없는 무장애 통합 놀이터 건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랑의 바자회를 통하여 놀이터 내 휴식공간 및 녹지 조성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기로 계획하였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바자회 진행이 어려워졌습니다.

작은 물방울의 힘으로 바다의 큰 기적을 이루듯이 청각 · 언어장애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언제나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선물해 주실 당신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성심농아재활원장 윤봉순 요한보스코 수녀

[농협 329-01-246440 / 우체국 301416-01-000649]

[성심농아재활원무장애 통합놀이터 조감도]

예금주: 성심농아재활원장



성심농아재활원 충북 충주시 봉원로 261-1 Tel 043.843.1337

★성심농아재활원에서는 법인세비행령 36조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로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 시 입금주 명에 반드시 '후원자 성명(놀이터)'이라고 표기해주세요★